

성모 승천 대축일

제1독서 : 묵시11,19a;12,1-6a.10ac

제2독서 : 1고린15,20-27a

복 음 : 루가1,39-56

순정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실어됩니다”
(루가 1,46-47).

강론

“틈새를 없애주신 마리아”

김병은 신부 / 신동 천주교회

금이 가고 갈라진 것들 뿐이다. 아파트 벽이 갈라지고 교량들이 금이 가고 있다. 한지붕 아래 가족들이 제 나름대로이고 친구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있다.

기계주의적인 사고와 배금주의적인 노예가 된 삶은 사회를 혼탁하게 하면서 각박한 생활로 몰아넣는다.

성실하게 내일을 그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눈초리를 찌푸리게 하는 부정과 부조리가 더더욱 삭막하게 마음을 조이고 있다.

흙투성이인 세상으로부터 하느님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오늘에 성모 승천 사건은 그 어떤 가치와 희망을 안겨준다.

마리아는 물론 여신도 아니고 신성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시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을 택하여 자기의 모친으로 삼고, 우리의 어머니 세계의 여인으로 삼으셨다.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받아들이셨기에 복되신 분이 되셨다. 마리아를 생각하기에 앞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흠송하면 할수록 마리아의 모성을 더욱 공경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덜 흠송할수록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도 그만큼 적어진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분 전체가 하느님과의 일치된 속성임을 들어내준다. 그러기에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어떤 형태의 악(죽음·부패)도 마리아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는 당신 아들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며 위안이 되고 계신다.

충만함은 어떠한 틈도 내주지 않는다. 금이 가거나 갈라진 틈새를 메꾸어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충만함이다.

극기와 인내 그리고 순명과 전적인 자기 봉헌으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없애주신 충만한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야겠다.

소리

“돌아온 선열과 무너지는 총독부”

48회 광복절을 맞으면서 뒤늦게나마 민족정기를 세우고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는 사업들이 벌어져 광복의 역사적 의의를 새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월초에는 임시 정부 선열 다섯 분의 유해가 중국으로부터 봉안돼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지난주 초에는 대통령이 한때 중앙청으로 사용됐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토록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민간이 먼저 서둘고 정부가 뒤에 나서서 환국한 임정 5위는 아직도 남아 있는 친일행적의 인사나 친일파의 후예들에게는 참회와 외경의 대상이 될터이고 항일 투사나 그 유족들에게는 자긍심을 북돋아줄 것이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돼온 총독부 건물의 철거 역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사업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할어버릴 능력이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도 들직한 느낌을 주었다.

이 건물의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곳을 찾던 일본 관광객들에게 오랜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다는 증거물 노릇을 했으리라는 점에서도 철거 조치가 오히려 대우지 않았나 생각된다.

임정 5위의 환국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신문 대담에서 “돈과 출세와 이득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된 오늘의 총체적 타락은 광복 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결과다.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에 협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역사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진**

순정이 산책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마리아 하늘에 오르심”

1. 성모 승천의 의미

동정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이 지상 생애를 마칠 때까지 현세에서 당신 아드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면서 성자의 구속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하였다. 원죄없이 잉태되시고 일생을 은총이 가득한 가운데—죄와 흠이 없이—사신 성모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후 당신 아드님 곁에 오르셨다는 것은 옛부터 믿어온 전통 신앙이다.

성모의 교황이라 불리던 비오 12세께서 1950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축일에 선포한 성모 승천의 주된 교의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는 것이다(비오 12세 사도헌장).

성모 승천은 지금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축일이다. 하느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는 비록 힘없고 가난할지라도 성모처럼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작은 사람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구세사 안에서의 마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교회의 원형(Model)’이다. 교회는 언제나 그분의 모습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승천은 곧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2. 마리아의 신심(성모 신심)

성모 마리아는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에 가해지는 하느님의 섭리를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신앙으로 순명(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하셨고 묵묵히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신 분이시다.

성모 마리아와 우리 구원과의 참된 관계는 공경하고 찬미드리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관계이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했던 마리아의 환



회와 아픔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성모 신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기에 슬한 아픔을 겪어내는 기쁨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시는 은총과 희망의 축제일이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축제를 지내며 커다란 기쁨과 함께 자성(自省)의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성모 신심’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직 하느님께만 충실해야겠기에 겪어야 했던 마리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외면한 채 마리아의 전구(傳求)로부터 얻어지는 은총에만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마리아의 이름을 앞세운 기복적, 미신적 신앙이 교회 곳곳에 퍼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의 특성은 나자렛의 예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에 이름’에 있다. 마리아가 여인이며 예수의 어머니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제외 받는 중개인으로 여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신심은 하느님을 섬기려는 내적인 자세이므로 그 척도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기도, 봉사, 희생 등 구체적인 생활태도와 사도적 활동으로 표현됨을 상기하면서 성모께 대한 건전하고 참된 신심을 간직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끝으로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 당신 아드님의 부활과 천상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신 성모를 우러러뵈시고 성모의 능하신 전구를 구해야겠다.

동영, 전원

유기질 비료(전북 총판)
원예용, 노지용, 작물용
서 용 문(요한)
중노송동 전고 앞
☎ 87-3090
팩스 012-688-5147

대림 카 세차장

세차, 오일교환, 특수코팅, 광택,
차량 상호 도색(전제품 3M 수입품)
정육식(베드로) 오병호(아벨)
군산 소룡동 성당 입구
☎ (0654) 62-9952

활 티 생 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물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잡간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2.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

긴 사각형의 한면을 180도로 한번 꼬면 안과 밖이 따로 없게 된다. 이를 뫼비우스의 띠라고 하며, 바깥쪽에서 칠을 해나가면 양면이 모두 칠해지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는다. 독일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뫼비우스(1790-1868)가 제시한 이 띠가 이번 대전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바티칸관 엠블렘을 장식하고 있다. 인류는 하나이고, 과학과 신앙은 동상(同象)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눈 안에 든 지구-하느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인류의 빛'이 바티칸관의 중심 주제이다. 인류의 삶과 그 문화 속에 현존하는 교회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올바르게 보여주면서, 과학 기술의 인간화와 문화의 복음화를 추구하고 있다.

흔히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왔고, 특히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와 과학자와 신학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 우주 과학이나 천체 물리학이 기존의 우주관을 뒤엎으면서 시작된 이런 논쟁거리들은 한쪽에만 집착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느 천문학자의 말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가장 염려하는 분은 교황이고, 또한 교황청이 미국 아리조나 등에서 세계 첨단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창조주와 우주의 참모습을 일부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신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갈릴레오 사건은 알려진 것처럼 교회가 과학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과학책이 아닌 성서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며, 첨단 과학 서적은 몇 년 가지 아니하여 낡은 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교구 소식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8월16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벤지.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8월15일(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2. '94년 부제서품 대상자 선발 전례 예식: 8월20일(금)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주례-이병호 주교, 대상자-김광석(원평), 박인근(오룡동), 김정민(서학동), 송년홍(시기동), 백승호(중앙), 김형남(시기동), 박동진(평화동), 김근수(금암동).
3. 예비 신학생 여름 모임: 8월20일-22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M.E. 주말: 8월20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5. 로사리오회 하계 연수: 8월21일-22일 무주 자연학습원.
6. 하나회 월례회: 8월22일(일)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7. 군중신부 주소 변경: 김요한 신부-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군인아파트 옆 선봉 천주교회 사제관(0335)35-2619.

정천봉 신부-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이황3리 상승대 천주교회 사제관(0336)641-0777.
 주목성 신부-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3반 노도 천주교회 사제관(0364)481-2610.
 강명구 신부-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2구 374-14 전진 천주교회(0348)942-0174.

※ 축! 영명: 20일(성베르나르도) 소순형 신부님, 21일(성비오) 문선구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재사용! 재사용!

사무실 복사기 옆 휴지통에 뒷면이 깨끗한 채 버려지는 용지를 잘 정리하여 메모지로 재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합니다.

요십이 (1042) 김병오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1. 판매기간: 8.21(토) - 10.10(일)
2. 가격: (8Kg 1상자당)
 특: 20,000원 대: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3. 구입 문의: (0658)43-0881, 0880 43-4236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성소자 모임

- 때: 8.22 낮 12시 - 오후 3시 반
- 곳: 광주 가톨릭센터 401호실
- 문의: ☎ (0334) 74-1251~2
- 대상: 수사신부, 수사 지망 학생 또는 일반인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생수 공급합니다.
지리산 보천광천탄수
전주, 이리, 군산, 정읍, 김제, 부안 지역 배달
전화: (0652) 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권이복
※ 수익금은 가톨릭 농민회 생명 공동체 운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특별 강연
주제: 성공적인 삶의 비결
때: 8월16일(월) 오후 2시, 7시
곳: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참가비: 2,000원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람.

오순절 평화의 마을 피정
· 때: 8월21일 17시-22일 17시
· 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 대상: 고교, 대학, 일반인 남녀
· 지도: 허성 신부(부산 가톨릭대학)
· 회비: 10,000원
· 준비: 신구약성서, 세면도구
· 문의: (051) 646-025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성모 승천 대축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1. 본당신부님 휴가: 16~20일. 16일-새벽미사, 17~20일-말씀의 전례
2. 장우회 야유회: 23일 변산반도
3. 울뜨레아 야유회 모임: 22일 공식미사 후.
4. 금주 모임: ① 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 여성연합회(17일)
③ 재속형제회(21일 후2시)
차주 모임: ① 제대회(24일, 어머니미사 후)
② 빈센시오(26일 전10시30분)
5. 금주 청소: 중노16, 17반
차주 청소: 중노18, 20반
□ 지난주 봉헌금: 891,290원 □ 교무금: 95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한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오늘 있습니다.
2. 신부님 휴가: 16~20일(16~20일 미사 없습니다)
3. 인누시아 수녀님 피정: 16일~27일
4. 회합: ① 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부녀회-19일 오전10시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이상인씨 부부
봉헌-박상기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이준철씨 부부
봉헌-김홍현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11,010원 □ 교무금: 1,053,05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욱

- ◎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 및 본당의 날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오늘 미사중
2. 모임: ①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장년회-21일(토)
3. 수녀님 피정: 21일(토)까지, 많은 기도바랍니다.
4. 꾸리아 산하 레지오 전단원 야유회: 18일(수) 지리산 노고단
5. 감사: 요셉회, 안나회, 야유회에 도와주신 분들께,
박순애-10만원 울뜨레아, 성모회, 장년회-각5만원 최상운-3
만원 임남옥-2만원 이준희, 황태홍-각1만원 계32만원
6. 제대꽃 봉헌: 김종석-10만원 이석남-3만원 박순애-2만원
7. 차주 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 정광섭 ② 오귀남
봉헌-오철규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4,500원 □ 교무금: 53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성모 승천 대축일! (오늘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음)
1. 성모회: 8월15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전례부 모임: 8월19일(목) 오후8시
3. 청년회 하계 수련회: 8월14일(토)~15일(일)(1박2일) 장소-진안 모정리
4. 교무금 미수자는 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은 신자권 자의 의무입니다. 정정껏 남부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819,000원 □ 교무금: 47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성모 승천 대축일
* 하늘로 올림 받으신 티없으신 마리아! 우리 위해 빌으소서.
1. 오늘 2차 헌금: 페루 선교사 위해서
2. 첫영성체, 유아세례: 신청바람
3. 첫영성체 어린이의 부모 모임: 8월21일(토) 후3시30분
4. 1인1단체 가입하여 냉담자를 찾으시다.
5. 청소년봉사: 2구역 1반 2반 3반
□ 지난주 봉헌금: 621,600원 □ 교무금: 1,44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1. 금주: ①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음. ② 어린이 첫영성체 (공식미사중)-37명 축하합니다. ③ 울뜨레아(공식미사 후)-남성45차, 여성43차 환영회-회원 모두 참석요망. ④ 바비의 성모 꾸리아(후2시) ⑤ 청년연합회 월례회(후8시)
2. 성모회: 16일(월) 오후6시 3. 성모회: 17일(화) 오전11시
4. 빼빼미회: 18일(수) 오전11시
5. 명화상영: 18일(수) 저녁미사 후 "성 막시밀리아노폴베 신부"
6. 차주: 성마리아 꼬미시오(후2시)
7.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대상-성가에 관심있는 젊은이. 연습-매주 화요일(오후8시), 일요일(오후6시)
□ 지난주 봉헌금: 1,791,2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 ◎ 성모 승천 대축일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1. 초·중·고 신앙학교 및 제단체 수련회에 협조하신 모든이와 교리교사 학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수녀원 증신 서원자 세미나: 16~19일 기도드립니다.
3. M·E 46차 감회: 20~22일 천호, 이병로, 김순덕 부부, 최창훈, 김정자 부부, 박경주 이금숙 부부
4. 선택 11차 감회: 20일~22일 나무위 대상: 미혼 청년
5. 성지순례: 9월5일 헤미→솔피 일반: 10,000원
중·교생: 5,000원
6. 모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후, 성모회-18일 어머니미사 후, 울뜨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황금의 공전Pr. 200차 야외미사: 19일 전10시 수만리
□ 지난주 봉헌금: 1,314,710원 □ 교무금: 1,50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게 하소서.
1.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자모회: 울뜨레아-오늘 미사 후
3. 반모임: 17일(화) 오전-성원 오후-윤남 저녁-삼정1·3 18(수)-화산1 오후-신일 19일(목)오전-그린1 오후-그린2
4. 중고생 산간학교: 19일(목)~21일(토) 장소-방화동 휴양소
5. 꾸리아: 다음주일 미사 후
6. 수녀원·사제관·회합실을 위한 신임극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7. 사무장 휴가: 23일(월)~27일(금)
금주 전례: 장병순, 한병갑 독서·봉헌-정인자, 서동호
차주 전례: 김희숙, 손금구 독서·봉헌-함영순, 서지석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1. 자모회: 8월16일(월) 오전 10시30분
2. 꼬미시오: 8월21일(토) 오후3시
3. 꾸리아: 8월25일(수) 오전10시
4. 구약성서반 모임(보좌신부님): 9월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8시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축하합니다! 꾸르실로스타: 문기중(사비노), 이은숙(테레사) 유명순(테레사), 권현련(제노비아)
* 청년성가대 및 어머니 성가대 단원을 연중 모집합니다.
* 미사안내: 금주-사목회 임원 차주-계약의 패, 상지옥좌
□ 지난주 봉헌금: 1,433,820원 □ 교무금: 2,16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 오늘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 모임 안내: ① 성전건축위원회-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20일(금) 오전10시
2. 축! 열세: 새로 영세받은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57,350원 □ 교무금: 1,266,000원
3. 성지순례: 9월12일 7시출발 성인7,000원, 학생5,000원
4. 미사시간: 월(새벽6시), 화·수(저녁7시30분), 목·금(오전 10시), 토(저녁7시30분), 일-6시, 9시, 10시30분, 저녁7시30분
차주 모임: 반석회, 신축헌금 봉헌액: 1,290,000원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심학섭 ② 김정희
봉헌 안내-이수원 부부, 이인신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① 김용준 ② 홍봉아
봉헌 안내-배종교 부부, 김대승 부부